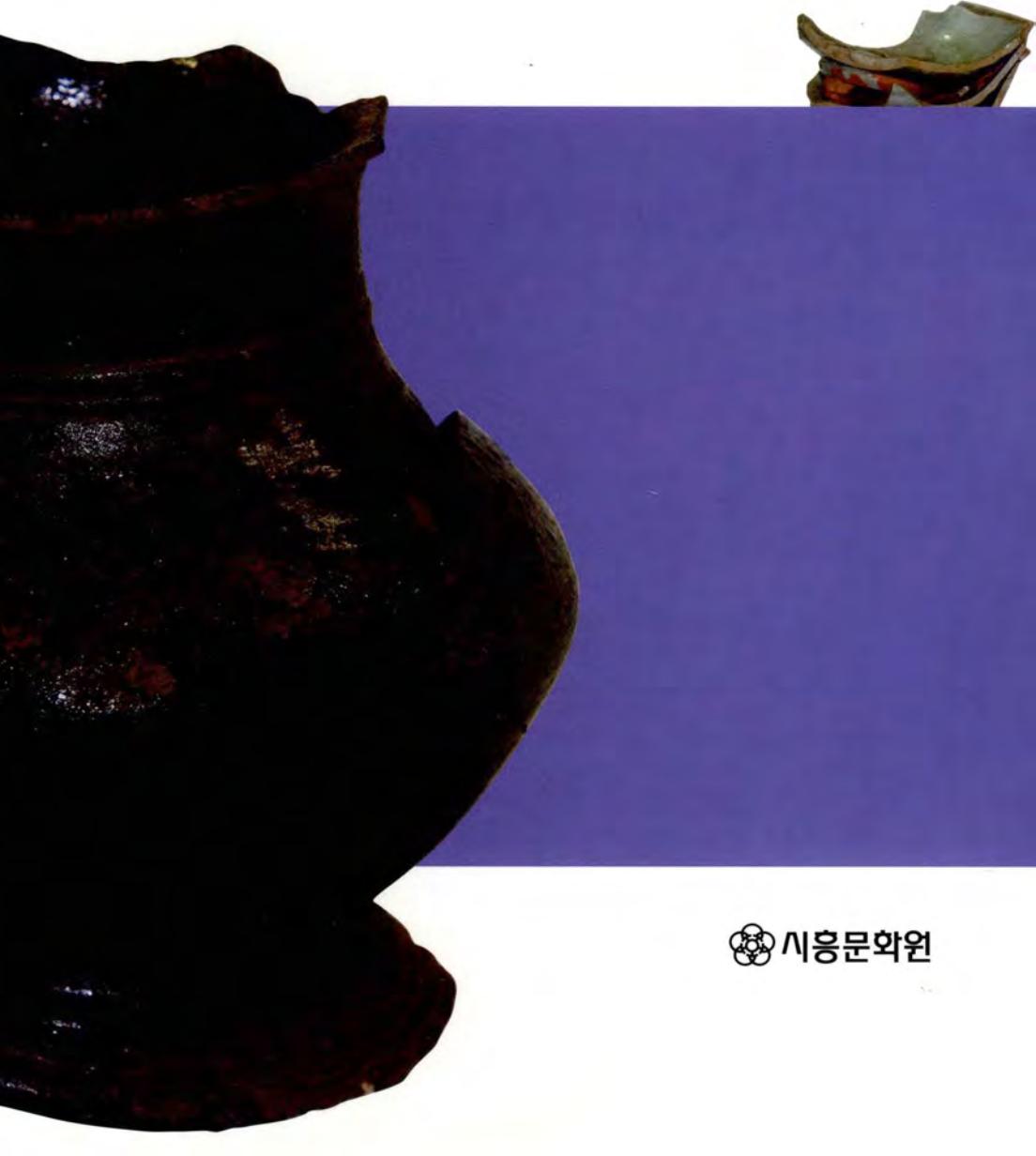


시흥역사자료전시관

S i h e u n g M u s e u m o f H i s t o r y



 시흥문화원

History

시흥역사연표





시흥의 유래	4
시흥역사자료전시관	5
시흥의 옛염전	6
특별전시관	7
생활유물관	8
선사시대관	10
청동기시대관	12
삼국시대관	14
고려·조선시대관	16
시흥의 어제와 오늘관	18
시흥의 인물관	20
엄마, 아빠의 학교생활관	22
머물고 싶은 시흥	24
시흥시 문화유산 위치도	26

시흥의 유태

시흥이란 이름은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대를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잉벌노현(仍伐奴縣)이라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현재 인천광역시 남구·남동구가 중심이었던 매소홀현(買召忽縣)과 현재 경기도 안산시인 장항구현(獐項口縣)에 속하였다고 추정된다.

1989년 1월1일 시흥군(始興郡)이 시흥·군포·의왕시로 분리 승격될 때, 당시 시흥군의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을 합쳐서 시흥시가 되었으며, 9개의 행정동으로 시작해 1992년 과림동과 연성동이 추가되고, 2003년 정왕동이 다섯개 동으로 분리되면서 총 14개 동에 40만여명(2007년 초 현재)이 살고 있다.



시흥역사자료전시관

시흥시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5천년 한반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화유산이 곳곳에 살아 있다. 구석기시대의 뗀석기, 신석기시대의 조개무지(貝塚),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백제의 토기, 통일신라 말부터 사용한 청자가마터, 2001년 국가보물 1324호로 지정된 고려 초의 소래산 마애상까지. 시흥시의 역사를 증명하는 다양한 역사유적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시흥역사자료전시관에서는 시흥 각지에서 나온 유물을 비롯해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도구와 근·현대 시흥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 전시관 규모 : 1층 전시관 90평 / 2층 영상실 40석
- 개관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매주 일요일 휴관)
- 예약전화 : 031-317-0827 • 1회 관람인원 : 40명



1층 전시관



1층 탁본뜨기 체험



2층 영상실

시흥의 옛염전

염전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소금을 생산하는 곳으로, 햅볕을 이용해 소금을 제작하는 천일염 방식은 1900년 일본에서 들어왔다. 시흥에는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이 있어 우리나라 소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군자염전은 1987년에, 소래염전은 1996년에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지금도 그 흔적이 포동 옛염전 터에 남아 있다.



❶ 바닥 고르기 : 바닥에 타일을 깔아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한다.

❷ 바닷물을 끌어올리기 : 무자위로 바닷물을 끌어들인 후 증발시킨다.

❸ 소금 만들기 : 햅볕에 의해 바닷물을 증발되고 소금만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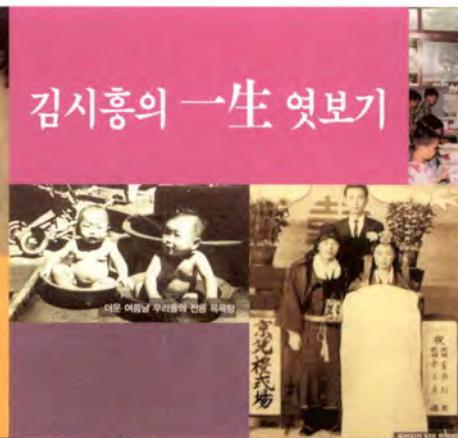
❹ 소금 건조하기 : 만들어진 소금은 창고로 옮겨 건조시킨다.

특별전시관

'김시홍'이라는 보편적인 시홍사람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모든 사람의 평생을 '김시홍'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하고 있다.

이 전시관에서는 근·현대에 수집된 각종 사진자료와 의복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김시홍의一生 엿보기



생활유물관

우리의 조상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전시한 공간이다. 방, 부엌, 혀간(지금의 창고)를 재현하여 각각의 공간에서 어떤 물건을 사용했었는지를 보여준다.



방

예로부터 방은 잠자는 휴식공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지만, 주부가 집안 살림을 꾸리면서 발달한 공간이기도 하다. 온돌과 함께 전통적 난방기구인 화로를 이용해 바느질할 인두를 달구며 의복을 생산하였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쓰는 신변잡구(身邊雜具)를 방안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갖추어 놓았다.



난로



부엌

전통적으로 식물성 음식으로 검소하고 소박한 식생활을 해 온 우리 민족의 부엌은 살림살이에 알맞게 여러 가지 그릇, 세간도구 등을 갖추어 놓은 곳이며, 조왕신이라 부르는 부엌의 신이 따로 있다고 믿을 정도로 중요한 공간이다.



헛간

헛간(광)은 생업과 관련한 각종 기구와 곡물을 담은 섬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농촌에서는 논밭을 가는 갈이용구, 곡식을 거두는 수확용구, 거름을 주는 시비용구, 곡식을 담아두는 저장용구 등이 주를 이루고, 어촌에서는 각종 고기잡이 도구를 보관한다.



대패

장군



선사시대관

지금으로부터 450만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인류는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돌멩이를 깨뜨려 여러가지 도구들을 만들어 냈고, 이런 돌도구를 통해 지구의 왕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를 ‘구석기시대’라고 한다. 또 수백만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인류는 돌멩이를 갈아서 쓰고, 음식물을 담아둘 질그릇을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농경생활을 시작했다. 이 시대를 ‘신석기시대’라 부른다. 선사시대관에는 구석기와 신석기시대의 석재유물들을 볼 수 있다.



|구석기 유물|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빼어내어 바로 도구로 사용하였다.



뗀석기(도창동)



찍 개(계수동)

|신석기 유물|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빼어내어 필요한 형태로 다듬어 도구로 사용하였다.



빗살무늬토기(정왕동) _ 토기의 표면에
빗살무늬를 그려 넣었다. 끝이 뾰족하여
모래나 흙에 구덩이를 파고 세워 사용하
였다.



간석기(마제석기)



간돌도끼

청동기시대관

돌을 이용하던 시대에서 청동(구리)을 이용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시대가 ‘청동기시대’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농사짓기라고 할 수 있는데, 농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나라가 생겼다.

청동기시대관에는 농사에 이용된 농구와 생활토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무늬없는 토기



반달돌칼



흙자귀

삼국시대관

청동기시대가 지나고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등 3개 나라가 생겨났다. 이 세 나라는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다툼 끝에 668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한반도에는 최초의 통일국가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 우리 시흥지역은 주로 백제의 영역이었다.





굽다리 접시



목짧은 항아리

목긴 항아리

고려·조선시대관

고려시대는 불교와 청자의 나라다. 시흥시에는 소래산마애상(보물 1324호)과 방산동 청자·백자가마터(사적 413호)가 있다. 고려시대관에는 청자·백자의 제작과정에 대한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록의 나라이 조선을 둘러볼 수 있다. 시흥시에 남아있는 여러 종류의 책과 관청의 보고문서, 현재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준호구 등은 조선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고려시대|



청자·백자 파편(방산동)

고급청자는 고열에 잘 견디는 갑발이라는 통 속에 넣고 굽게 되면 그릇에 잡티가 앓지 않고 골고루 색이 곱게 구워진다. 일상용품은 여러 개를 포개서 받침(토봉) 위에 올려놓고 굽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봉을 이용한 가마재임



갑발을 이용한 가마재임



|조선시대|



안산군수서서목(安山郡守書目) _ 書목은 조선시대에 하급관서에서 상급관서로 옮리는 일종의 보고문이다.



완문(完文) _ 완문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또는 관청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일제강점기때 발행된 채권



황성신문 : 국·한문 혼용의 황성신문은 1898년(광무 2)에 창간된 신문으로 애국적 논필로 한말 정국을 비판하다가 을사조약(1905년)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으로 정간당하였다가 수개월만에 복간되었다.



교지 : 조선시대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각종 문서이다.

시흥의 어제와 오늘관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흥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옛날옛날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긴 흑백사진들 속에는 다양한 자동차와 논두렁 사이를 지나는 달구지 등 지금은 사라진 풍경들이 담겨있고 1970년대부터는 컬러사진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도시와 생활 모습도 세련되기 시작한다. 사진 외에도 지금은 보기 힘든 주판에서부터 지갑, 거울, 석유등잔 등 옛날 생활 용품도 함께 전시돼 있다.





오이도(정왕동)



복지로(구신천삼거리)



1950년대 농촌의 초가집
(월곶동 고잔)



오복동다리(신천동)



도두머리길(도창동)



1970년 뱀내우시장(대야동)

시흥의 인물관

시흥을 빛낸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시흥의 꿈나무들이 내고장 인물들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인물과 공간|



관곡지 _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8호 / 지정연월일 : 1989년 3월 3일 / 소재지 : 시흥시 하중동 208 / 시대 : 조선시대

관곡지(官谷池)는 조선 전기의 명신(名臣)이며 농학자로 이름이 높은 강희맹(姜希孟, 1424~1483) 선생이 사신으로 중국 남경(南京)에 있는 전당지(錢塘池)에서 연꽃씨를 채취해 귀국한 후, 하중동에 있는 연못(관곡지)에 재배를 해 점차 널리 퍼질 수 있었다.



하우명 효자정각 _ 지정번호 : 향도유적 제11호 /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1일 / 소재지 : 시흥시 신천동 422 / 시대 : 조선시대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의 3남인 하우명(河友明, 1413~1495) 선생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각(旌闈)이다.



조병세 선생 묘 _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5호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3일 / 소재지 : 시흥시 조남동 산 121-7 / 시대 : 묘(광무9년, 1905), 사적비·와비(1990)

조병세(趙秉世, 1827~1905) 선생은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순국열사로,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처형과 을사조약(乙巳條約)의 무효화를 주장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유소(遺疏)와 각국 공사 및 국민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했다.

엄마, 아빠의 학교생활관

엄마 아빠의 학창시절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교과서, 학용품, 도시락 등이 전시돼 있다. 특히 옛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교과서는 지금의 자녀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중년의 부모들은 짧게 자른 머리에 교복 입은 학생들과 교실 풍경들을 담은 사진들 속에서 옛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공간이다.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도 즐거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상장 및 통신표



초등학교 교과서



1970~72년 졸업사진



1970년 교련복을 입은 남학생들



1970년 야외에 나온 여학생들

등사기



도시락



책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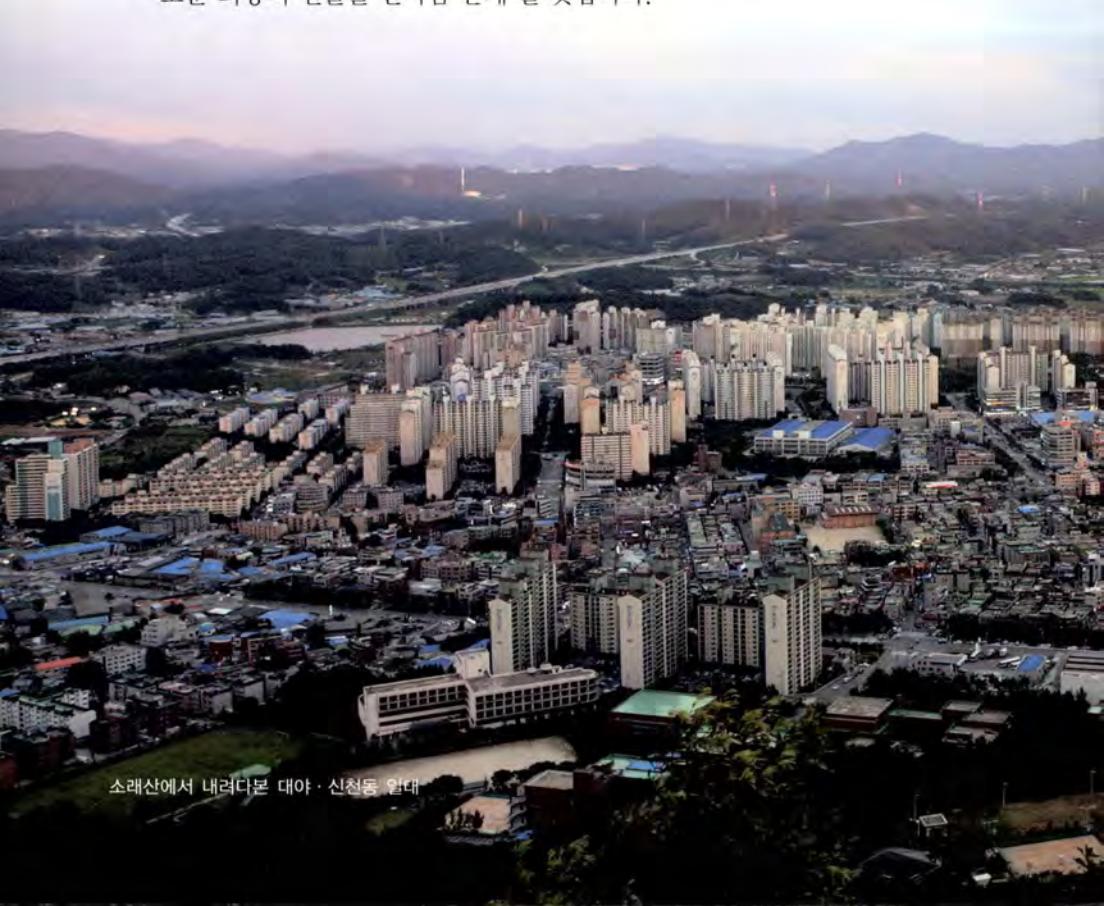




발길 닿는 곳마다 머물고 싶은 시흥!

5천년 한반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시흥! 시흥은 발길 닿는 곳마다 우리 선조들의 자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한 박물관입니다.

또한 시흥은 전통 위에 21세기를 새로 쓰는 도전의 도시입니다. 신이 내린 천혜의 자연 속에서 꿈결 같은 여행을 하는 동안 어느새 가슴 속에는 삶의 기운이 꿈틀대고 새로운 희망의 선물을 한아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래산에서 내려다본 대야·신천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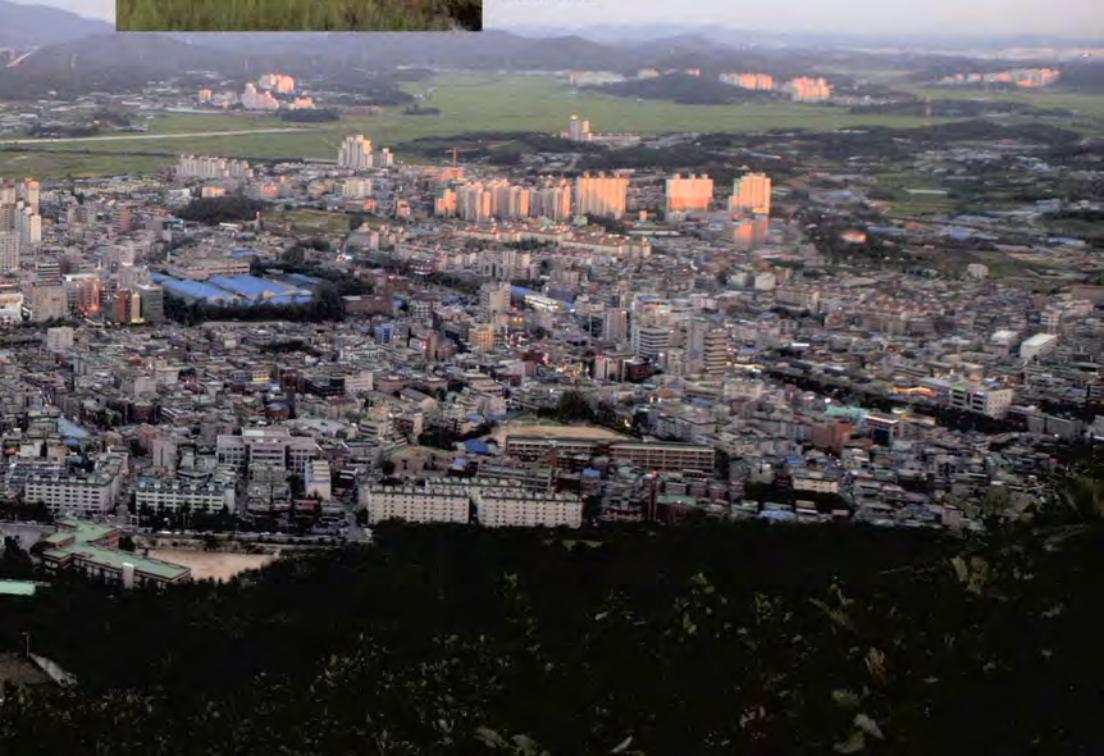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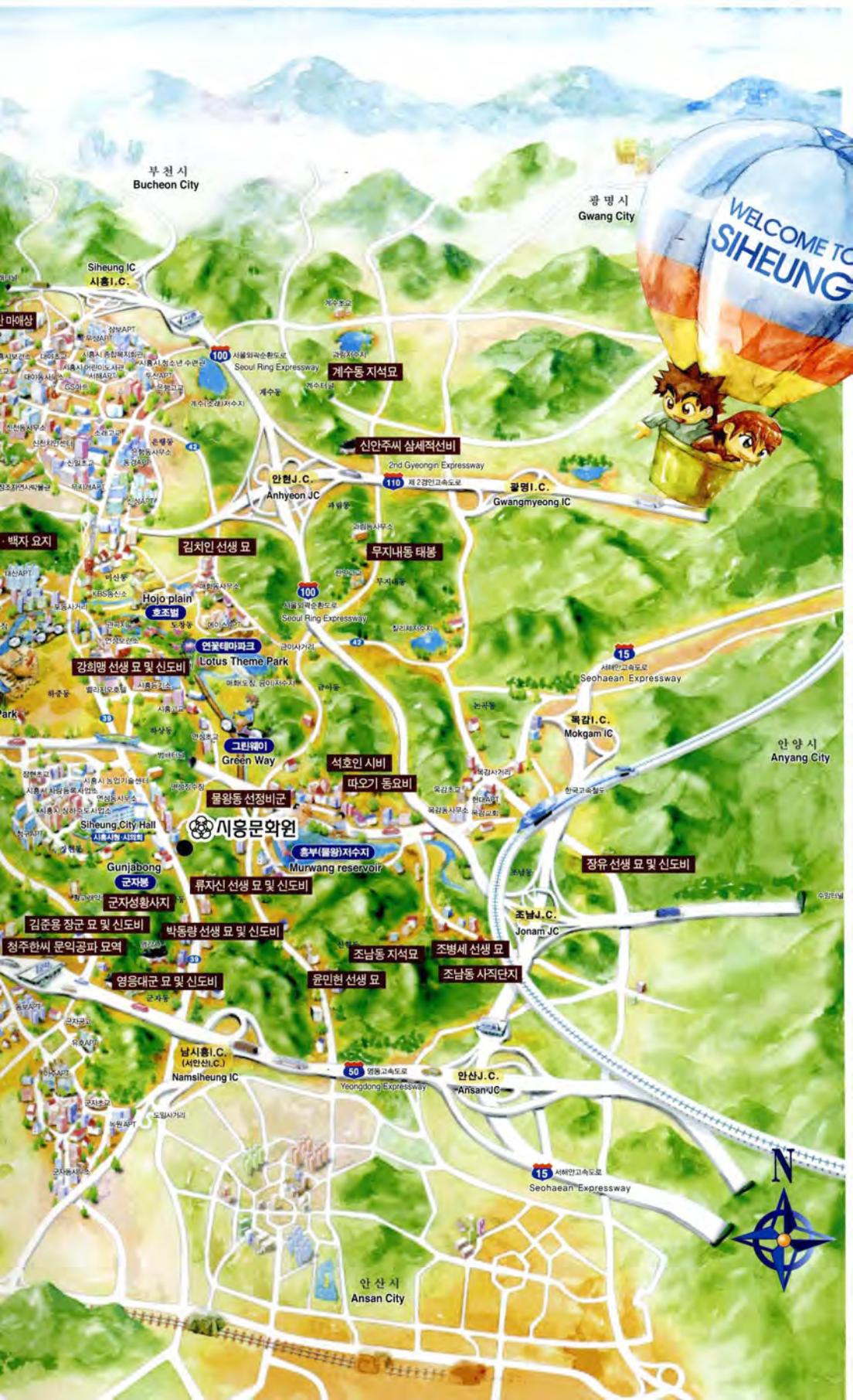


오이도 낙조전망대



시흥시 문화유산 위치도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5번지

TEL. (031)317-0827 FAX. (031)317-0828

발행 : 시흥문화원 / 기획 : 시흥문화원 사무국 · 시흥시 향토사료실

편집디자인 : 코인뱅크(031-404-3110) / 발행일 : 2007년 3월

※ 이 책은 시흥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음